

# 청풍계의 역사적 배경과 지형변형에 관한 연구

이진향\* · 이재근\*\*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I.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은 조선의 개국과 한양천도 이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한 나라 수도로서의 위상을 면면히 지켜온 우리나라의 으뜸도시이다. 「한경지략」,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조선왕조 오백년간의 실록 등 서울에 대한 각종 중요한 자료가 남아 있고, 각 분야별로 비전문가의 가벼운 호기심에서 출발한 여행서로부터 체계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구한 역사와 우리나라 都市史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의 4사산 중 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과 경복궁의 주산인 백악산이 이어지는 계곡은 도성에서 가까우면서도 경관이 수려하여 옛 선비들의 별서지로 이름이 난 곳이 많았으며 청풍계도 그 중 하나였다. 청풍계를 포함한 서촌은 율곡학파의 중심지였으며 진경문화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하여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촌지역은 그 모습이 왜곡·변형되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지금 청풍계는 세검정으로 가는 길목 지하철 터널 입구 조용한 주택가로 남아있다. 옛 풍광은 물론 지형마저 변하여 아름답던 경관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묻히고 도시 재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은 훼손되어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조선의 대표적인 명승지 청풍계의 지형, 지질, 수계 등의 자연환경과 그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행적을 통하여 대상지만이 가지는 장소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청풍계와 그 주변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역사적 배경을 파악하여 청풍계의 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18C 청풍계의 아름다웠던 경관의 재현을 위한 청풍계 원 경관에 관한 연구이다. 청풍계는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물줄기인 삼청동천과 백악동천 중 백악동천이 흐르는 수계, 즉 청계천 발원지의 한 줄기로 밝혀졌다. 따라서 문헌이나 회화 등을 통해서 지형·지질·수계의 분석은 청풍계 지역의 도시재개발 사업에 기초가 되리라 사료된다.

## II. 연구범위 및 방법

청풍계는 지금의 청운동 52번지 일대다. 본 논문의 범위는

청풍계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풍계 일원과 그 영향권인 서촌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관련된 문헌조사, 고지도 분석, 회화 작품분석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중 문헌조사는 광해군 12년(1620) 「청풍계첩」에 수록된 각종 시문과 그림, 仙源의 傍孫인 東野 金養根(1734-1799)이 영조 42년 지은 「楓溪集勝記」에서 나타난 건축물과 지당, 수목, 길, 경물과 암석의 배치와 명칭 등을 분석하였다. 회화는 지형과 원형을 파악하고자 검재 정선의 그림 <淸風溪>를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안동 김씨와 장동

조선 말 순조 임금 대 이후로 왕후가 연이어 3명이 나오는 등 모두 신안동 김씨, 혹은 장동 김씨라 불리는 한 집안에서 나왔으며 세도정치 60년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였다. 그들은 이 곳 장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한 가문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됐나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조정은 태조 5년(1396) 4월 19일 한성부의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등 5부제를 베풀고 이에 각 부마다 방명표(坊名標)를 세웠다. 이 때 인왕산 동남기슭과 북악의 서남기슭은 북부 순화방, 준수방으로 구획 지였으면서, 이 일원이 온통 '장의동'으로 불렸다. 즉 무속헌터를 중심으로 유란동, 쌍효자각, 창의동, 백운동, 인왕동, 옥류동 등, 지금의 효자, 창성, 청운, 옥인동 일대에 흩어져 살면서 '장의동 김씨' 혹은 '장동 김씨'로 불렸을 것이다. 장동일대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의 대명사가 된 안동 김씨 혹은 장동 김씨의 조선 중기 세거지로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 2. 선원 김상용과 청풍계

안동 김씨는 구안동 김씨와 신안동 김씨로 구분할 수 있다. 구안동 김씨와 신안동 김씨는 본관과 성씨가 같을 뿐, 별개의 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가문이며 실제로 서로 혼인했음을 안동김씨 대동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구안동 김씨가 번성하는데 비하여 신안동 김씨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지역의

향반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신안동 김씨의 발전은 그들의 터전인 안동을 떠나 한성으로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청풍계는 처음 선원 김상용의 고조부인 永錄(1446-1502)이 터를 마련하고 종가 후손들이 모두 경상도 풍산으로 내려가면서 선원에게 물려주었다. 仙源 金尙容(1561-1637)은 栗谷 李珣(1536-1584)와 牛溪 成渾(1535-1598)으로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올랐다. 仙源이 청풍계의 전장을 꾸민 것은 48세가 되던 선조 41년(1608) 가을이었다. 仙源은 여기서 부친 김극효를 모시고 살았다. 김극효는 자주 손님을 불렀기에 청풍계는 늘 사람들로 붐볐고 각종 시회를 여는 등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1618년 아버지 김극효가 세상을 떠나고 한때 청풍계를 떠나기도 하였으나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중용되어 다시 돌아와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거쳐 정승에 이르렀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왕족을 시종하던 仙源은 강화도가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질러 그의 13세 손자와 함께 순절하고 만다.

무속헌터(지금의 궁정동 2번지)에 사는 청음 김상헌은 김상용의 친 동생으로 월정 윤근수, 우계牛溪 成渾(1535-1598)의 문인이며 1596년(선조 29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입문하였고 형仙源과 마찬가지로 그 성품이 방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강직하였다. 특히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목숨 걸고 주전론을 고수한 배척주의의 상징인물로 심양으로 끌려가 6년 동안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김상용은 종묘사직을 위해 분신 순절하였고, 김상헌은 척화의 혹독한 대가로 심양으로 압송되어 감금생활을 당하는 등 이들의 행적은 충절의 표본이 되었다. 청풍계에 김상용 순절을 기려 숙종 34년 그의 영당인 凜然舍가 세워졌다.

청풍계가 다시 활기를 띤 것은 仙源의 고손인 김시걸, 김시보 등이 청풍계의 주인이 되어 金昌協, 金昌翁, 金昌業 형제와 어울리면서 성향을 이룬다. 김수항의 아들들은 첫째 창집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벼슬을 하지 않고 산수와 더불어 자적하면서 학문에 몰두하여 저마다 문집 하나씩을 낼 정도였다.

율곡학파<sup>1)</sup>의 중심인물이었던 율곡栗谷(1536-1584)과 송강松江(1536-1593) 그리고 우계牛溪 成渾(1535-1598), 白麓 辛應時(1532-1585) 등이 모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인 지금의 궁정동,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일대의 순화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생 후예들이 집단적으로 이곳에서 세거하면서 그 학통을 계승·발전시켰다. 따라서 청풍계가 중심이 된 白岳洞府는 조선성리학의 근원보장의 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진경산수화의 대가라 할 수 있는 謙齋는 청풍계 근처에 있는 유란동(지금 경북고등학교가 들어선 청운동<sup>2)</sup> 89번지 일대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전반생을 보냈으며 진경화가로 대성할 다음에는 지금의 옥인동인 자수궁교 근처의 인왕곡으로 이사했다. 유란동에 살던 당시 이웃에 사는 金壽恒의 아들인 農

巖 金昌協(1651-1708), 三淵 金昌翁(1653-1722),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문하에 들어 성리학과 詩·文·書·畫 수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의 후원으로 진경산수 화풍을 대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율곡학파의 근원 보장지인 백악산 아래 장동 일대에서 三淵 형제들을 비롯한 지촌 등 尤庵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경문화가 활짝 꽃피게 되므로, 이들 모임을 백악사단<sup>3)</sup>이라 일컫게 된다.

### 3. 청풍계의 자연 지형과 수계

한경지략 권 2 교량 조(240쪽)에 “인왕산 아래 백운동천 물이 동남으로 흘러 자수궁다리를 거쳐 금청교로 흐른다.”라고 밝혔듯이 백운동은 고관 신분의 시인 묵객들이 시문으로 읊을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었으며, 백운동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백운천물이 중간에 꺾이어, 자수궁다리(慈壽宮橋 - 효자동과 옥인동 경계에 있었다.)로 흘러서 내쳐 경복궁의 서십자각 근방의 금청교 쪽으로 흘러 내렸다. 이 백운동천이 지금의 청운초등학교 앞 큰길에서 휘기 이전까지의 구간을 청풍계라고 하였다. 지금의 청운초등학교 뒷골목이 바로 백운동의 청풍계곡 구간으로 백운동 아래 청풍계를 창의동으로 치기도 하였다. 이 같이 청풍계는 청계천의 발원지<sup>4)</sup>로 알려졌다.

청계천이 복원되었으나 발원지로부터 시작하는 지류는 복원되지 않았다. 청계천이 진정한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기 위하여 청계천의 지천을 복원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하천이라는 의견이 초기부터 대두되었다. 현재 정부당국도 이 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하여 백운동천의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청풍계는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지천의 복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옛 지형과 그 모습을 고증하여 옛 청풍계의 경관을 현재에 재현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발원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물길과 그 물이 지하로 투수되고 물 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생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검재 정선의 작품 〈淸風溪〉圖 분석

〈淸風溪〉圖는 선원의 고택을 검재가 진경화법으로 사생해 낸 그림이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에 실제 존재하는 명산승경을 소재로 하고 남종화법에 토대를 둔 한국적 화풍으로 그려 낸 것이다. 검재 정선은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사람으로 한양진경을 비롯하여 금강산 등 우리나라 명승을 자신의 독특한 화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검재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백악산과 인왕산 주변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청풍계는 인근에 외가택이 있는 등 가문과 학연 및 세연으로 밀착되었으므로 자주 화폭에 올렸다.

표 1. 청풍계 경관요소 분석

구분	경관요소	지형 및 경관분석
건물	태고정(太古亭)	재료: 짚으로 이은 지붕, 절벽통 / 규모: 한 칸은 넘고 두 칸은 되지 않음 주변현황: 오래된 삼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벽송(碧松) 천 그루가 울창함
	청풍지각(靑楓池閣)	김상용의 종증조인 김영의 소유였으나 김영이 아들 김기보가 경상도 풍산으로 이주하면서 청풍계를 손자 김상영에게 넘기고 기념으로 지어준 건물 한호의 '청풍지각' 현판이 있음 / 선조의 이필 '청풍계'라는 글씨를 붉고 푸른 비단에 써서 걸어두었음
	소오헌(嗚傲軒)	각의 동쪽에 위치
	와유암(臥遊庵)	헌의 오른쪽 운돌방 / 김상용은 명화와 고적을 좋아하여 이곳에 진설해 놓고 즐겼다. 뜰 남쪽에 수백 년 된 수백 길의 회목, 서쪽 축대 위에 두 그루 노송
	원심암(遠心庵)	배성단 왼편 佛堂 터 / 1790년경 안동 김씨 집안의 金道淳, 金履禧의 도움을 받아 원심암을 중수하고 黃運祖의 초서를 받아 편액을 달음
	늪연당(늪연사)	숙종 34년(1708), 김상용의 순절을 기려 그의 영당을 봉안한 사당 늪연사 건립에 깊이 관여한 송시열이 사당 앞의 큰 바위에 '대명일월' 네 글자를 새김 청풍계가 충절의 상징으로 이름을 얻음
	좌불석감(坐佛石龕)	서굴암 아래 남쪽 벼랑 위
연못	조심당(照心塘)	태고정 옆 제일 위 연못
	함벽당(涵碧塘)	태고정 옆 두 번째 연못
	척금당(滌矜塘)	태고정 옆 세 번째 연못
협곡	청령협(靑泚峽)	생학봉과 만나는 곳에 위치
	비래천(飛來泉)	청령협 아래 작은 폭포
	망귀곡(忘歸峽)	청하동 우화대 아래 협곡
	난가곡(欄柯谷)	세이암과 진로폭포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
	명옥간(鳴玉澗, 清流湍)	서소대 아래 태고정 남쪽 담장 너머 유선동 청령동 청하동 미화동 등 네 골짜기의 물이 이곳에서 모이므로 청류단(靑流澗)이라고도 함
길	조진동(朝眞磴)	
고개	송월령(送月嶺)	관운대 서쪽
	백설령(白雪嶺)	낙월봉 왼편에 위치 / 백설령 아래 성재정이 있음
봉우리	낙월봉(落月峰)	인왕산 제일 높은 봉우리
	벽련봉(碧蓮峰)	인왕산 두 번째 봉우리
	주홀봉(柱笏峰)	인왕산 세 번째 봉우리 / 태고정 담장 너머에 있는 서오대 남쪽에 위치
	생학봉(笙鶴峰)	청하동의 다른 즐기 여러 봉우리가 삼연하게 옥을 깎아 놓은 듯하고 이끼가 푸르러 멀리서 보면 생학과 선인이 나는 듯한 형상
	와룡강(반룡강)	
	蒼玉峯(蒼玉屏)	청풍지각 북쪽 석벽 세 그루의 소나무가 일산처럼 서 있음 / 그림 병풍처럼 아름다워 화병암(畫屏巖)이라고도 함
동네(동)	만송강(萬松岡)	태고정 남쪽으로 마주 보이는 낮은 언덕 / 김상용이 만 그루 소나무를 심은 곳
	청하동(靑霞洞)	선유동 북쪽 / 나무꾼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맑은 물이 옥을 토하는 듯하여 오뉴월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였다고 함
	선유동(仙遊洞)	낙월봉 아래 계곡
단	미화동(迷花洞)	봄이 되면 두견새가 산언덕에 가득하여 사람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눈을 아찔하게 하였다고 함
	송월단(松月壇)	와유암 옆 / 청하동
우물	청류단	
	배성단(拜星壇)	옥류암 시냇가에서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 위의 석단
	성제정(聖齋井)	18세기 칠성암으로 불리며 士女의 기도처가 됨
대	회심대(會心臺)	태고정 서쪽 위치
	天遊臺(憑虛臺)	회심대 위쪽에 위치
	청풍대(靑楓臺)	'大明日月 百世靑風'이라는 각자가 있음
	세심대(洗心臺)	송월령을 넘어 있음
	서소대(舒嘯臺)	봄이면 산살구 천여 그루가 성대히 피어나 마치 눈같이 흰 장막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웠다고 함
	우화대(羽化臺)	청하동 북쪽 / 우화대 아래위에 소나무 두세 그루가 있는데 탁 트이고 시원하기에 그 위에 잠시 앉았노라면 표표히 白日昇天할 생각이 들 정도
바위	관운대(管雲臺)	너럭바위 이곳에서 백악산과 삼각산의 여러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짐
	탄금석(彈琴石)	함벽당 왼편 바위 / 평평하고 바르네 그 두께가 가지런하고 길쭉하여 마치 깎아놓은 베자리 같음
	병취암(屏翠巖)	붉은 벼랑과 푸른 석벽이 마치 비단병풍을 펼쳐놓은 듯 함
	振衣巖(振衣岡)	천유대 위에 위치 / 세속의 찌든 먼지를 떠나는 뜻
	세이암(洗耳巖)	선유대와 조진동 서쪽 / 2층 폭포가 떨어져 바위가 세숫대야처럼 오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玉流巖(漱玉巖)	옥류암 입구 / 세이암 아래 물결은 진로폭포에서 합쳐지는 데가 태고정 남쪽 바위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맑은 샘물이 흘러내림 / 그 가운데 옥을 깎아놓은 듯한 옥잠봉(玉簪峰)이 있음
	서굴암(棲鶴巖)	벽련봉 아래 위치 / 석벽이 끊어진 듯하여 사람은 올라갈 수 없고 부엉이, 올빼미, 매가 내려와 서식
	풍영암(風詠巖)	서굴암의 협곡을 끼고 있는 곳 / 낙락장송 한 그루가 서 있음
화병암(화병암)	청하동에 위치	

진경산수화법의 특징이며 실경산수화와 다른 부분의 하나의 그림의 시점이 하나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즉 한 화면에 두 개 이상의 경관을 재구성하여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즉 〈淸風溪〉圖를 분석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랫부분이 근경, 가운데 부분이 중경, 맨 윗부분이 원경이다. 원근법에 의하여 그리면 가까운 근경은 크게 그리고 중간은 중간 정도의 크기로 원경은 까마득히 그려야 하나 윗부분은 원경인 인왕산을 끌어와 위쪽에 그렸고 그 다음은 중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늪연사와 태고정 연못을 화면 중간에 그렸으며 화면 앞에는 가까이 전나무와 인물, 누각을 그렸다. 근경 오른쪽에 있는 누각이 靑楓池閣이다. 靑楓池閣은 팔작지붕의 이층 누각이며 네 칸의 마루와 두 칸의 방으로 되어있다. 중경은 따로 지붕을 없앤 太古亭, 주위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오른쪽 방향에 연못이 있는데 이것이 三塘(照心塘, 涵碧塘, 滌衿塘)이다. 원경은 커다란 두 암벽, 바위 위에는 소나무가 운치 있게 있는데 이것이 '大明日月 百世淸風'이라는 각자가 새겨진 청풍대다.

#### IV. 결론

본 논문은 청풍계의 역사적 배경과 원형 경관에 관한 연구로 첫째 조선 말기 세도 정치로 인하여 장동 김씨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집안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안동 김씨가 서촌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북궁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조선시대 장동 혹은 장위동이라 불렀으며 신안동김씨가 안동에서 처음 올라와 세거지로 자리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동은 선원 김상용이나 청음 김상헌 등 충절의 표본이며 조선 성리학자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사는 곳이었다. 또한 農巖 金昌協(1651-1708), 三淵 金昌翁(1653-1722), 老稼齋 金昌業(1658-1721)과 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율곡栗谷 李珣(1536-1584)과 송강松江 鄭澈(1536-1593) 그리고 우계牛溪 成渾(1535-1598), 白麓 辛應

時(1532-1585) 등의 교류는 장동일대가 율곡학파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율곡학파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겸재 정선, 사천 이병연 등 백악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진경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 18C 당시 청풍계에 있었던 건축물, 연못, 지형, 수목의 원형 경관을 추정할 수 있도록 겸재 정선의 그림을 비롯한 회화와 「楓溪集勝記」 등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청풍계를 구성하는 경관요소를 정리하였다, 청풍계가 지금은 그 지형이 변형되어 그 원형을 찾기 힘들지만 대상지의 수치지도와 컴퓨터의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사이버 상에서의 재현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이는 장차 진행되고 있는 서촌지역의 도시 복원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기준과 참고가 되리라 예상된다.

- 주 1. 율곡학파는 이이를 중심으로 성혼, 정철, 송익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인으로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이며 조선 후기 정치와 성리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 주 2. 1914년 경성부제 실시로 청운동은 백운동과 '청풍계'를 병합한 동명이다.
- 주 3. 三淵을 중심으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진경시문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대개 백악산과 인왕산 아래의 순화방에서 대대로 살던 서인 자제들이며 이들을 백악사단(白岳詞壇)이라 한다.
- 주 4. 청계천 발원지의 다른 한 줄기는 북악산 서쪽 줄기 240m 삼청동 삼청공원 내에서 시작한 물줄기로 삼청동천이다.

#### 인용문헌

1. 김병기(2007) 조선명가 안동김씨. 김영사.
2. 이종목(2006) 조선의 문화공간.
3. 고연희(2006)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4. 최완수(1993)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범우사.
5. 최완수(2004) 겸재의 한양진경. 동아일보사.
6. 이기봉(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7.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나노미디어.
8. 서울시문화사학회(1999) 서울의 잊혀진 마을 이름과 그 유래. 국학자료원.
9. 강명관(2009) 사라진 서울. 푸른역사.
10. 고동환(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